

# IPS연동 웹 차단 기술 개발

## 닉스텍 '포티게이트'에 적용

정보보호 기업인 닉스텍(대표 박동훈)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해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침입방지시스템(IPS) 연동기술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.

닉스텍이 이번에 개발한 IPS 연동기술은 IPS가 탐지한 공격자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달하고 이를 분석해 감염된 노트북 등의 웹 관련 트래픽만을 차단, 고립시켜 사내 확산을 막아준다.

회사측은 기존의 IPS 제품들이 주로 인터넷 접점구간과 같이 특정 네트워크 경계지점에서 웹이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했지만, 외부에서 감염된 노트북을 사내에서 접속했을 때 확산될 수 있는 각종 웹이나 제로데이 공격(Zero-day Attack)에 대한 대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.

닉스텍은 우선 포티넷의 통합보안제품인 '포티게이트'에 연동기술을 적용하는 작업을 마쳤으며, 곧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. 강동식기자@디지털타임스/dskang@